

# 지상파 UHD 도입 논의 본격화

## 지상파 UHD 방송표준 및 정책방안을 위해 정부 차원의 움직임 보여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 지상파 UHD 방송표준협의회 출범

지난 7월 지상파 UHD 방송에 30MHz가 할당되는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안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 지상파 UHD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먼저 UHD 국내 표준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을 위해 산·학·연 공동 '지상파 UHD 방송표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했다. 지난 8월 11일 첫 회의가 열린 협의회는 방송사, 가전사,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되어 국내 방송환경에 적합한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을 논의한다. 김용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협의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앞으로 지휘를 할 예정이고, 협의회 참여기관 실무진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실무적인 검토 및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11일 첫 회의에서는 국내외 UHD 방송표준 현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고갔다. 앞으로 협의회는 유럽방식과 미국방식 등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을 위한 검토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부에 정식 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를 검토한 후 국내 UHD 방송표준방식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지상파 UHD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TF 출범

다음으로 지난 8월 19일 첫 회의가 시작된 '지상파 UHD 정책방안 TF'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연·관 공동으로 출범하였고,

지상파 UHD를 위한 주요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지상파 UHD 방송표준 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실무자 중심의 전담반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19일 회의에서는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과 미래부 최재유 2차관이 참여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마련한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듣고 향후 전담반(TF)에서 검토해야 할 방향과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방통위와 미래부는 실무 전담반에서 마련한 정책초안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그 전까지 지지부진한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700MHz 주파수 대역 할당이 끝난 지금, 장애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지상파를 제외한 유료방송에서는 UHD 방송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셋톱박스와 채널 분배, 기타 서비스 등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되었고, 활발하게 서비스 중이지만 역시 UHD 콘텐츠의 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외에서도 UHD 협의회가 속속 출범하고 있는데, 영국의 UHD 포럼이나 UHD 얼라이언스 등을 비롯해 미국에서도 UHD 포럼이 이번 IBC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한다고 하니, UHD는 전 세계적인 흐름일 뿐만 아니라 미래 미디어 산업을 선도할 키워드인듯 싶다. 늦었지만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TF 구성을 시작으로 국내에 UHD 생태계가 조성되어 진정한 문화, 미디어 강국으로 발돋움하길 바란다.



지상파 UHD 방송표준협의회



지상파 UHD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TF

# 입체영상연맹 ISU,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총회 개최 3D한국국제영화제영화제 등 9월 5일부터 열려

방송과기술 편집부



## 20th 2015 ISU World Congress

전 세계 스테레오그래픽 회원들의 대회인 ISU 총회가 9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개최된다. ISU(International Stereoscopic Union)는 1975년에 조직되어 45개국의 2000여 회원사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국제 입체영상연맹으로 회원이 제작한 입체사진과 비디오, 홀로그래피, 가상현실(VR) 등 스테레오 입체영상작품들을 감상하며 관련 최신기술을 상호교류하고 발전방향을 연구하면서 서로 친목을 나누는 세계적 규모의 입체영상축제이다. 올해 20회째인 이번 총회에는 회원과 입체영상관련 산업관계자들, 제작자를 포함 해외 30여 개국의 300여 명, 국내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놓칠 수 없는 3D 영화, 스테레오영상 시사회와 실감영상 전문 워크샵

총회는 3D한국국제영화제(3DKIFF), 스테레오 작품 시사회인 3D 프로젝트, 실감영상기술교류를 위한 테이블트레이드, Phantogram과 VR기술 관련 전문 워크샵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다.



ISU 총회 사진

올해 7회째를 맞는 3D한국국제영화제는 국내를 포함 미주, 유럽, 아시아에서 출품된 작품들 중에서 엄선된 8개국 작품 42편이 영화의전당 하늘극장에서 9월 5일, 6일 이틀 동안 세션별로 나누어 상영된다.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코미디, 판타지 등 장르도 다양해 일반인들이 3D 영화를 즐길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상에는 장/단편 대상과 우수상, 기술상 등 총 8개 부문에 걸쳐 이루어지며 시상식은 9월 7일 저녁 7시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에서 ISU 개막식과 동시에 진행된다.

3D 프로젝트는 세계 ISU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들을 시사회하는 자리이다. 입체사진 위주의 슬라이드 형태로 영화의전당 하늘극장에서 4일 동안 상영되며, 워크샵은 실감영상분야의 핵심기술인 3D VR(Virtual Reality) 및 팬토그램(Phantogram)을 주제로 산업계와 학술회가 모여 함께 진행한다.

## 화려한 폐막식과 부대행사

ISU의 개막식은 문화공연과 영화제 시상식과 함께 해운대 센텀호텔에서 열린다. 7일(월) 저녁 7시에 열리는 개막식은 3D 영화제 시상식과 '판(PAN)'을 주제로 대북, 장고, 한량무 등이 어우러진 오프닝공연이 동시에 진행된다. 폐막식은 11일(금) 저녁 8시 ISU 시상식과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주제로 한 국악관현악과 퓨전음악 공연이 함께 열린다.

행사와 관련된 문의는 총회 사무국(02-912-6683)으로 연락하면 된다.



3D 한국국제영화제